

광주 문화콘텐츠 기업 '협업 비즈니스모델' 본격화

디자인진흥원, 문화예술인 지원 영상·음악 등 5대 콘텐츠 기업 대상 마케팅·사업화 등 최대 1억원 지원 "새 브랜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인의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협업형 비즈니스모델 발굴·육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 BM(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협업형 사업화 지원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영세하고 사업화 역량이 취약한 지역 문화예술인, 관련 소기업의 사업화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 따르면 예술소

득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연평균 소득은 1430만원(2021년 기준)으로, 1인 최저 생계비보다 크게 낮아 이른바 '생계형 투잡(Two Job)', 또는 전업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문화예술 소비력이 낮아 판로가 부족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디자인진흥원은 문화예술인의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육성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디자인진흥원은 △미술 △영상 △음악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콘텐츠 분야와 연계된 협업형 비즈니스모델을 발굴,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0일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 BM(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업형 사업화 과제 공모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기업(주관기업)이 4개 이상의 기업(작가, 프리랜서 포함) 등과 협업 팀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업은 지역 및 업종 제한이 없으나 5대 문화콘텐츠 분야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기업, 작가, 프리랜서 등이 70% 이상 팀원으로 포함돼야 한다. 다만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TV·OTT △사행성 업종 △생계형, 개별 기업 지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 유형은 미술, 응용미술, 음악·연주, 공연, 공예, 디자인, 출판 등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온오프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오프라인 공동 상설 전시판매시스템 △집적지 공동브랜드 창출 △이업종 간 협업 사업화 모델 △협업 창·제작 및 사업화 모델 등이다.

사업 신청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에서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8월21일까지 이메일 접수(design119@gdc.or.kr) 하면 된다.

디자인진흥원은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비즈니스모델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가치창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올해 12개 내외의 지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행사 중개 플랫폼, 온-오프라인 미술 작품 전시·판매 시스템, 문화예술 체험교육 플랫폼 과제 등은 우대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2단계로 나뉘어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1단계는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비즈니스모델 구체화(개발)을 지원하고, 2단계는 개발된 비즈니스모델 마케팅 및 사업화 등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BM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디자인, ICT, AI 기술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협업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화 방향을 정립

하도록 DX(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문화콘텐츠 분야 BM 발굴 및 육성은 지역 문화예술인 소득 향상은 물론 문화산업 육성과 새로운 브랜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희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예술인들의 사업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전업작가 및 프리랜서 등의 지속가능한 소득향상, 문화예술의 산업화를 위한 협업형 혁신 BM 발굴·육성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오는 24일 동구 서남동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4층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 분야 BM 발굴·육성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고소한 춘천 감자빵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18일까지 줄서서 먹는 강원도 춘천 명물 '춘천 감자발 감자빵'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춘천 감자빵'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반죽하고 100% 국내산 감자를 사용한 건강 간식으로, 겉은 쫄깃하고 속은 으개서 구운 감자로 가득 차 있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오리지널 감자빵 3개를 9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으며 10개 구매 시 1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 이력' 운영

광주경총자총협회가 운영 중인 중장년 내일센터는 구직과 이직 및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위해 동영상 시청방식인 '전직지원 이력' 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중장년대상 프로그램은 대면교육 위주의 운영으로 센터에서 정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맞춰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일정을 맞추기 힘든 경우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온라인 교육이 개설됨으로써 이런 불편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은 총 13개 모듈로 중장년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력분석, 변화관리, 대인관계 이해, 구직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직지원 온라인 과정은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 외 활동으

로 인정되며 수료 후 센터방문자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수료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재중 센터장은 "전직지원 이력 과정은 특히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전직지원 온라인 과정을 수강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하에 2013년부터 지역 중장년(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교육에 참여하려면 'elifeplan.or.kr'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후 '전직지원(온라인)-광주경총자총협회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김치타운, 광주은행 플랫폼 '와요장터' 입점

남도 특화 김치 상품 등 선배

㈜김치타운은 최근 광주은행과 특산물 광고 협약을 맺고 스마트뱅킹 '광주와뱅크(Wa Bank)' 내 '와요장터'에 입점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 '와뱅크' 가입자는 75만명에 달하며, 다양한 지역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의 플랫폼 '와요장터' 서비스

신규 런칭과 함께 지역 대표 특산물인 김치를 제공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은 '광주와뱅크-생활혜택-요즘'에서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 김치들을 종류별로 만나볼 수 있으며 남도 특화 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김치타운 관계자는 "와뱅크"는 지역 사회로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면서 소비자 접근을 끌어들이

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서비스 일환으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김치 구매까지 이뤄질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치타운은 사회적기업으로 광주시로부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광주김치타운 시설의 다양한 김치문화 체험, HACCP 김치공장 견학 등 광주지역 김치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권범 기자

기아, 연식변경 모델 'The 2025 봉고III' 출시

크루즈 컨트롤 등 사양 확대 1톤 2035만원부터 판매 시작

기아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The 2025 봉고III'를 16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The 2025 봉고III는 연식변경 모델로,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전교습용 차량에 자동변속기(A/T)를 신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위 트림까지 △전동접이아웃사이드 미러 △크루즈 컨트롤을 확대 적용하고, 상위 트림에는 트윈터 스피커 크롬인사이드 도어핸들·파킹브레이크 레버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향상했다.

이와 함께 1톤 초장축 더블캡표준캡 기반의 운전교습용 차량에 기존의 수동변속



기아 The 2025 봉고 III.

기아제공

기 외 자동변속기 모델을 추가로 운영해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고객의 선택지를 넓혔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편화에 따라 4분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새롭게 도입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전망이다.

판매 가격은 △1톤 2035만~2300만원 △1.2톤 2455만~2560만원이다.(2WD

초장축 캡, 6단 수동변속기 기준) 운전교습용 차량의 판매 가격은 △1톤 표준캡 1988만원 △1톤 더블캡 2127만원이다.(2WD 초장축, 6단 수동변속기 기준)

자동변속기를 선택할 경우 1톤 차량은 113만원, 1.2톤 차량은 107만원이 추가된다.(4WD는 자동변속기 선택 불가)

박소영 기자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직업훈련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네팔 '야무' 직원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기업 성장력 및 근로자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사진 공모전'을 개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빛나는 순간, 우리의 성

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업훈련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총 32점의 사진이 출품됐으며, 최우수상에는 송운산업의 네팔 출신 야무(MAGAR YAM BAHADUR) 직원의 작품이 선정됐다. 야무씨는 현장에서 궁

금했던 내용을 교육 훈련, 학습하는 모습으로 사진에 잘 표현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장은 "기업직업훈련 사진 공모전을 통해 직업훈련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자주 마련해 직업훈련 역량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